

장흥군,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농식품부 공모 선정...가공 표준화 프로세스 가동 한삼덩굴·흑하랑 등 상용화...농산물 가치 극대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전남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그린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손잡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군을 거점으로 천연물소재의 재배부터 원료 공급, 성분 분석 등 전주기적인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외망 그린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는 국책 프로젝트다.

군은 공모 선정 직후부터 선제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내 특화 천연물 자원의 원료 공급망 단단히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흥군은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의 가동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천연물 소재인 ‘한삼덩굴’과 ‘흑하랑’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계약재배를 적극 유치·추진하며 구체적인 지역 경제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경기도 소재 기업인 ㈜팬츠와의 유가적 협력을 통해 ‘한삼덩굴(어린이 키성장 효과)’ 소재의 국산화 및 대량 생산 체

계 구축을 유지했다. 한삼덩굴은 지난 2025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현재 본격적인 사업화가 실현되고 있는 핵심 전략 소재다.

수면 개선 효과로 주목받는 토종 산차 품종인 ‘흑하랑’ 또한 장흥군의 주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유니바이오는 지난 2024년 흑하랑 품종 통상실시권 획득 및 2025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 완료를하고 2027년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에 발맞춰 장동면에 흑하랑 시범

재배 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표준화 허브를 통해 지표성분 설정 및 원재료 표준화 관리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2027년 양산 시점에 맞춰 장흥군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장흥에 완전 정착시킬 예정이다.

군은 단순한 원료 생산을 넘어, 고도화된 성분 분석과 가공 표준화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생산부터 최종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격화함으로써, 관내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입산 원

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 기능성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중심으로 기업과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약재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흥군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천연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정명수 기자 jms050311@

야간 식사 불편 해소...구례 ‘밤한끼’ 운영

군, 관광지 인근 음식점 10곳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야간에 도 관광객들의 식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 운영하는 음식점을 지정해 운영한다.

30일 구례군에 따르면 10월부터 야간 식사 가능 업소 ‘구례 밤한끼’ 10곳을 운영한다.

‘구례 밤한끼’는 구례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저녁 시간에도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 중심으로 오후 9시까지 야간 식사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각종 축제와 행사 기간마다 구례를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부족하다’는 지

적이 나오면서 야간 영업 체계를 구축해 관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지만,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부족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 내에서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야간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을 모집해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홍보하고, 관광객의 식사 편

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음식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0개 업소는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야간 식사가능 일반음식점’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련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장길선 군수는 “축제나 관광을 위해 구례를 찾은 방문객들이 저녁 시간에 이용할 식당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구례에서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 실현 방안을 구체화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생태·산업·돌봄 강화’ 더 큰 순천 만든다

시, 민선 9기 방산·우주항공·그린바이오 미래산업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생태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 실현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변화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방안, 핵심사업의 실행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방산·우주항공·그린바이오·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앵커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자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통합특별시·고흥군과 협력해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고,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에 탑재될 순천시 첫 인공위성 ‘순천SAT’

의 지상국 구축과 운영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지원과 특수목적고 유치,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에서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재 성장사다리도 마련한다.

시민이 정책 결정부터 평가까지 참여하는 열린 시장을 구현에도 힘쓴다.

15분 생활권 조성과 광역급행버스 운영으로 이동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24시간 돌봄체계와 AI·사람 중심 통합돌봄, 순천형 쇼아음급식 구축을 추진해 출생한 돌봄·의료 안전망을 갖춘다. 노인일자리도 2027년 522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훈모 시장은 “2027년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며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은 속도감 있게, 성과는 확실하게 만들어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모아 더 큰 순천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추억·낭만·사랑 싣고 ‘석곡 코스모스음악회’

곡성, 내일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일원서 개최

‘제26회 석곡 코스모스음악회’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곡성군 석곡면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는 ‘코스모스 향기에 추억 사랑 싣고’를 주제로, 코스모스를 테마로 한 문화 공연과 체험, 먹거리, 주민·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축제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들도 축제에 함께 참여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프린지 공연을 비롯해 숲놀이·투호·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천하장사 씨름대회, 떡매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농산물인 백세미를 활용한 비빔밥 나눔을 통해 지역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토종어류 방류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저녁에는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10월 2일 설윤도, 10월 3일 현진우, 10월 4일 지원이 등 여러 가수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선보인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돌실노래방 가요제’가 열린다. 참가자들이 노래방 기계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기계에서 산출되는 점수로 순위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제26회 석곡 코스모스음악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코스모스와 음악이 어우러진 석곡의 가을 속에서 추억과 낭만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국군장병 복지 증진·재난 신속 대응 ‘맞손’

고흥,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와 상생 협약

국군장병 복지 증진과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국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팔영산 호텔에서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와 지역관광 활성화·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군부대가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실질적인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군장병들이 북부지역인 고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혀 지역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군은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및 체험프로그램 할인 등 국군장병 대상 관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4해안감시기동대는 지역 내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가용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대민지원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군장병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을 지키는 국군장병들이 고흥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며 지역을 더욱 가까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해 국군장병 복지와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최근 팔영산호텔에서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와 지역관광 활성화·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군 관계자,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광양,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31일까지 무단입산 등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본격적인 가을철 입산을 수확기를 맞아 입업인의 재산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을철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 등 수실류, 산약초류의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산을 채취가 우려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입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불 피우기와 화기 소지·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인력, 읍면동 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해 입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도 감시할 계획

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채취한 입산물은 압수·폐기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여순10·19사건 78주년

여수, 추념음악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여순 10·19사건 78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전하는 추념음악회를 개최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 오후 5시 여수 진남문화관에서 ‘1948년 그날의 아이에게, 2026년 오늘의 우리가’라는 부제 아래,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매개로 당시 포대 청소년들이 겪었던 아픔을 되새기고 세대를 넘어 공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음악회는 1948년 당시 사건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한독유전청소년오케스트라와 레몬트리어린이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여순사건의 아픔을 담은 창작곡 ‘검은 풀(Schwarzes Gras)’과 통일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환상곡 그리고 여수의 기억과 약속을 담은 ‘I Believe’등을 선보이며, 국악적 정서와 클래식의 조화를 통해 평화와 치유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영학 시장은 “이번 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역사에 참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며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념 음악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티켓은 ‘여수약기’(웅천3길 8-1)와 ‘카페 옥수’(웅천4길 12-11)에서 받을 수 있다. 공연 관련 문의는 (010-5570-3765 또는 010-7622-3765)로 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